

# 체험형 독서치료란 무엇인가?

김정근 · 신주영 · 김순화 · 김수경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

july75@pusan.ac.kr

## 1. 들어가며

2007년을 마감하고 새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독서치료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거기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성장과 변화의 자국을 확인하게 된다. 2000년대 초기의 준비기와 이룩기에 불가피하게 따랐던 혼란과 불안의 요소가 어느 정도 가신 느낌도 든다. 우후죽순처럼 경쟁적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듯하다. 도서관의 선택 사항도 분명해지는 것 같다.

아울러, 독서치료 관련 활동가들의 인식 또한 한 층 더 깊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관련 용어의 정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독서치료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이런 것 같다. 사교육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섹체가 농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독서치료에 관한(about) '지식'의 전달에 관심이 많고 민간자격증을 매개로 활동의 축이 돌아간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지식형'(knowledge-oriented)이라고 일컫는다. 한편, 도서관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대인 봉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사람의 치유와 변화의 '체험'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체험형'(experience-oriented)이라고 일컫는다.<sup>1)</sup>

도서관은 태생적으로 '체험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지식형'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에 대한 대인 서비스를 떠나서는 의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전국의 도서관들이 투명한 눈을 가지고 '체험형'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독서치료의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글쓴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경험을 살려 지금 우리 사회와 도서관계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체험형' 독서치료의 위치를 설명하고 특성을 밝히기 위해 마련

1) 김정근 외, 『체험적 독서치료』(학지사, 2007) ; 김정근 외, 『독서치료 사례 연구』(한울, 2007).

된다.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체험형’의 실행과 관련한 약간의 노하우도 아울러 전달하게 될 것이다.

## 2. ‘체험형’ 독서치료의 위치와 특성

### 2.1 우리나라 독서치료의 세 가지 흐름

우리 사회에는 지금 다양한 독서치료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그룹에 따라 상담학을 기반으로 삼기도 하고,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을 배경으로 삼기도 한다. 그 가운데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도서관 사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계통의 활동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 가운데 독창성이 있는 연구물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적용과 실천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세 그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활동을 검토하면 우리나라에서 구현되고 있는 독서치료의 갈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독서치료 활동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룹은 대전지방법원의 가사조정위원인 이영애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회>(일명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한 모임)이다. 1991년에 활동을 시작한 <신성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독서치료 그룹이다. 그동안 상담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회는 주로 가정생활과 정신건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으며, 활동가들 스스로 책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확장하여 모임을 인도해 왔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상처입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를 ‘상처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사변으로 흐르지 않고 실천적이며 효과적인 치유 모임을 이끌 수 있는데, <신성회> 활동에는 바로 이 ‘상처입은 치유자’ 정신이 잘 녹아 있다.

<신성회> 활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활동가들은 출판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고, 유용한 자가치유서(self-help books for healing)를 발견하며,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대화식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신성회 활동의 뚜렷한 특징이다.

<신성회> 인도자들은 주로 번역된 치유도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서양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면에서는 비교적 초연하다. 무턱대고 서양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숭앙하거나 추수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이 사회를 사는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걸맞은 적용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과 이웃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려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활동은 다분히 토착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독서치료로 치유할 수 있는 문제와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여, 치유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업주의적이지 않고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또한 우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신성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이 그룹의 초기 멤버들이 펴낸 『책읽기를 통한 치유』(홍성사, 2000), 『치유가 일어나는 독서모임』(조이선교회, 2007), 두 권의 책에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책들의 내용은 독창적이다. 서양을 어설피게 흉내 내고 현학과 관념에 찌들어 있지 않다. 저자들의 목소리가 책 속에 살아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sup>2)</sup>

2) <신성회>는 그동안 수많은 활동가를 배출하였다. 그 가운데 이영애, 이소라, 성은실, 노현미의 활동이 특히 돋보인다.

두 번째 그룹은 초등 및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김현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국독서치료학회>이다. 그룹 멤버들 또한 주로 아동학과 유아교육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그룹은 학회의 형태로는 2003년에 출발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의 성과로서 개론서인 『독서치료』(학지사, 2001)를 내놓은 적이 있다. 학회 출범 이후인 2004년에는 이 책의 개정판을 내기도 했다. 어린이 독서치료를 위한 매뉴얼 성격을 가지는 『독서치료의 실제』(학지사, 2003)도 이 학회의 산물이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주로 어린이 대상 독서치료 문헌을 생산하고 어린이 대상 독서치료사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 그룹이 지금까지 배출한 민간 자격증을 갖춘 독서치료사의 수 또한 적지 않다. 대상이 어린이인 만큼 활용하는 자료는 주로 어린이 문학에서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그룹은 부산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정근이 이끄는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줄여서 책정연)이다. 이들은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독서치료에 접근하며 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1년에 그룹 단위 활동을 시작한 <책정연>은 그동안의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그 한 가지는 책읽기 자체를 통한 치유의 ‘체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위의 <신성회>의 경우처럼 ‘상처입은 치유자’의 길을 지향한다. 이것은 사교육시장 같은 데서 인기가 있는 지식 중심의 ‘기획 독서’, ‘학습 독서’, ‘기능 독서’를 경계한다는 말도 된다. 그 원리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참선이나 요가에서와 같다고 보고 있다.

이 그룹은 자기치유서를 활용하는 그룹 테라피 형식을 선호한다. 이 때 중심은 역시 책이 되며 참여자의 책읽기 행위가 장려된다. 활동가들은 독서치료사란 표현을 가급적 삼가고, 그 대신 치료 모임의 진행자 또는 인도자 정도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도서관 사서, 학교 교사, 또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일정 정도의 훈련을 거치면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책정연>의 활동은 최근에 나온 『독서치료 사례 연구』(한울, 2007), 『체험적 독서치료』(학지사, 2007), 두 권의 책에 잘 드러나 있다. 충남대학의 이소라는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독서치료이론의 힘을 빌기 보다는 자신들이 독서치료그룹의 일원이 되어 체험한 것을 기초로 독서 자료를 선별하는 특이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 현상학적 방법에 의한 질적 연구물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라고 평가한다.<sup>3)</sup>

## 2.2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독서치료의 방법

그동안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독서치료의 형식과 내용을 모색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글쓴이들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을 함께 활동하며 독서치료의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체험해보기도 하며 참여자들에게 적용하여 반응을 살피고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 결과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도달한 결론이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그룹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시험 기간을 거쳐 ‘시판’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의 예로서 글쓴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그룹 테라피 과정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들이 그동

3) 이소라, 「독서치료의 개념과 상담자의 역할」, 《교육연구논총》(충남대학교), 27권 2호(2006), 46쪽.

안 발전시킨 도서관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서비스 기관 친화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책읽기를 통한 마음 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하여 마음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독서치료의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책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황별로 주어진 매체를 읽고 상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상황별로 매체를 읽고 독서치료의 역동적인 원리 즉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을 경험함으로써 독서치료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한다.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 모두 상호 교감을 통하여 독서치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므로 수업을 대비한 독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sup>4)</sup>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상황과 매체이다. 매체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 때는 치유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또 다른 부분으로서 참여자, 진행자, 진행 방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다. 성인을 위한 과정에 비해 어린이 과정은 특수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2.1 상황과 매체

마음을 다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어른에게도 일어나고 어린이에게도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 속의 상처라고 한다. 생활 속의 상처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가정, 학교, 동네, 그 어디서나 상처는 일어난다.

마음을 다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인해 마음 상함이 일어나는 반응 전반을 가리킨다. 그래서 마음 상함은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응어리진 마음 상함 또는 마음의 상처는 그 진원지를 파악하여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sup>5)</sup>

독서치료에서 상황이란 마음의 상처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교적 일반성이 있는 상처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특수한 부위의 상처는 정신과의사와 같은 보다 더 훈련된 전문가의 몫이 된다. 상처의 부위는 나이와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상황이 상처의 부위를 가리킨다면 매체 또는 치유서는 일종의 처방이다. 그래서 독서치료 과정에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wounded emotion)과 아픈 마음(hurt mind)을 돌보아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즉 아픈 마음을 달래고, 상처를 치유하며 장애를 넘어서고, 성숙한 인격으로 발전하기 위해 인간을 귀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 내면의 문제 특히 상처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치유서가 될 수 있다. 잘 선정된 치유서는 독자에게 동일화-카타르시스-통찰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을 가볍게 한다.<sup>6)</sup>

4)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치료사 과정 안내문

5)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두 번째』(부산대학교 도서관, 2007), 4쪽에 유사한 입장이 드러나 있다. 이 입장과 관련하여 배르벨 바르데츠키, 『따귀 맞은 영혼』, 장현숙 옮김(공리, 2002)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6) 『마음의 상처,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두 번째』(부산대학교 도서관, 2007), 4쪽.

치유서는 픽션도 될 수 있고 논픽션도 될 수 있다. 상황에 부합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논픽션 자가치유서(self-help books for healing)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문헌 조사를 해보면 자가치유서의 활용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는 외국의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효과 면에서 자가치유서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이는 연구 결과도 다수 내놓고 있다. 독서치료 활동에서 자가치유서의 활용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종의 ‘자가치유서 운동’(self-help book movement)이 일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가치유서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John T. Pardeck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한 기법으로 독서치료의 도입을 적극 주장한다. 그의 여러 저서 가운데 『Using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A Guide to Self-Help Books』(Greenwood Press, 1993)는 쉽게 잘 씌어진 책으로 정평이 나 있다. Pardeck교수는 이 책에서 그 어느 다른 매체보다 자가치유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ardeck교수의 입장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막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독서치료 활동의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픽션을 많이 활용한다. 이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런 것 같다. 이것은 어른은 논픽션을 즐겨 읽고 어린이는 픽션을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의 반영일 수 있고, 한편 어른을 위한 출판시장에는 논픽션 자가치유서가 다량으로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 책의 출판시장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 어린이 책 시장은 여전히 픽션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sup>7)</sup> 이 글 역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전개되고 있다. 성인을 위해서는 논픽션 자가치유서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해서는 픽션 타이틀을 주로 활용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상황과 매체의 보기는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글쓴이들이 공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관심을 가지는 개인이나 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통상 주1회 12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 〈상황과 매체(치유서)의 보기〉

#### · 성인을 위한 상황과 매체(치유서)

1회 상황 : 오리엔테이션/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진행 방법, 참여자의 역할 등 소개 ;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해

2회 상황 : 말하기의 치유력/ 매체 : 오한숙희, 수다가 사람 살려. 웅진닷컴, 2004.

3회 상황 :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매체 : 이호철, 학대받는 아이들. 보리, 2001./ 관련자료 : 명창순, 울어도

7)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면 좀 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엔 독서가 훌륭한 치료법」, 《내일신문》, 2007. 9. 20 ; 김정근, 「스캇 펙(M. Scott Peck)을 아십니까?」, 《국회도서관보》, 2004. 6 ; 김정근, 「치유서란 무엇인가?」, 《도서관문화》, 2004. 9 ; 김정근, 「치유서의 조건」, 《출판저널》, 2004. 11 ; 김정근, 「자가치유서(self-help books)의 발전」, 《출판저널》, 2005. 4

- 관찮아. 푸른책들, 2006.
- 4회 상황 : 성장의 아픔/ 매체 : 이희경. 마음속의 그림책. 미래m&b, 2000./ 관련자료 : 비디오 시청 : 추적60분. 명문대생 그는 왜 부모를 살해했나? ; 공지희. 영모가 사라졌다. 비룡소, 2003.
- 5회 상황 : 부모/ 매체 : 수잔 포워드. 흔들리는 부모들. 사피엔티아, 2000./ 관련자료 : 박경태. 엄마, 내 생각도 물어줘! 시공주니어, 2005.
- 6회 상황 : 결혼과 이혼/ 매체 : 브루스 피셔 ; 로버트 앨버티. 다시. 친구미디어, 2004./ 관련자료 : 에밀리 멘데스-아폰테. 난 이제 누구랑 살지? 비룡소, 2003.
- 7회 상황 : 가난/ 매체 : 신경숙. 외딴방. 문학동네, 1999./ 관련자료 : 김중미. 종이밥. 낮은산, 2002.
- 8회 상황 : 학교/ 매체 : 김혜련. 학교종이 땡땡땡. 미래M&B, 1999./ 관련자료 : 구자형. 버림받은 성적표. 보리, 2005.
- 9회 상황 : 자아찾기/ 매체 : 버지니아 M. 액슬린. 딥스. 샘터, 2002./ 관련자료 : 야마나카 히사시. 내가 나인 것. 사계절, 2003.
- 10회 상황 : 정신건강의 이해/ 매체 : 김형경. 사람풍경. 예담, 2006./ 관련자료 : 최훈동.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한울, 2001.
- 11회 상황 : 여자와 남자/ 매체 : 언니네 사람들. 언니네 방 1-2. 갤리온, 2006-2007./ 관련자료 : 고은명. 후박 나무 우리 집. 창작과비평사, 2002.
- 12회 상황 : 가부장사회/ 매체 : 이하천. 나는 제사가 싫다. 이프, 2000./ 관련자료 : 심윤경. 나의 아름다운 정원. 한겨레신문사, 2002.
- 13회 상황 : 자아존중감/ 매체 : 로프 메르클레. 자기 사랑의 심리학. 21세기북스, 2007./ 관련자료 : 맥스 루케이도. 너는 특별하단다 1-2. 고슴도치, 2004.
- 14회 상황 : 성폭력/ 매체 : 이금이. 유진과 유진. 푸른책들, 2004./ 관련자료 : 돌로레스 클레이본(Dolores Claiborne, 비디오)
- 15회 상황 : 감정/화/ 매체 : 브랜다 쇼샤나. 마음의 불을 꺼라. 정신세계사, 2006./ 관련자료 : 미셸린느 먼디.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비룡소, 2003.
- 16회 상황 : 상실감/ 존 제임스, 러셀 프리드만.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 북하우스, 2004./ 관련자료 : 존 제임스 ; 러셀 프리드만 ; 레슬리 랜던 매유스. 우리 아이가 슬퍼할 때. 북하우스, 2004.
- 17회 상황 : 대인공포증/ 매체 : 이시형. 대인공포클리닉. 이다미디어, 2002./ 관련자료 : J. S. 잭슨. 수줍어도 관찮아. 비룡소, 2007.
- 18회 상황 : 용서/ 매체 : 프레드 러스킨. 용서. 중앙M&B, 2003./ 관련자료 : 캐럴 앤 모로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비룡소, 2005.
- 19회 상황 : 죽음/ 메리 다피츠. 정오에서 해질녘까지. 성바오로, 2003./ 관련자료 : 비디오 시청 : BBC 인체대 탐험 7, 영원한 순환(The end of life) ; 오츠카 아츠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글로세움, 2006.
- 20회 상황 : 치유와 성숙/ 매체 : M. 스캇 펙. 아직도 가야 할 길. 열음사, 2007./ 관련자료 : M. 스캇 펙. 거짓의 사람들. 비전과 리더십, 2007.

· 어린이 저학년을 위한 상황과 매체(치유서)

- 1회 상황 : 오리엔테이션/ 책읽기를 통한 마음 돌보기란 무엇인가? ; 참여자 소개
- 2회 상황 : 화/ 매체: 채인선, 화야, 그만 화 풀어. 황유리 그림. 아지복스. 2006./ 관련자료 : 물리 뱅, 쓰피가 화나면-정말, 정말 화나면... 이은화 옮김. 케이유니버스. 2000.
- 3회 상황 : 슬픔·수줍음/ 매체: 카린 케이츠, 슬픔을 치료해 주는 비밀 책. 웬디 앤더슨 홀퍼린 그림. 조국현 옮김. 봄봄. 2005./ 관련자료: J. S. 잭슨, 수줍어도 괜찮아.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7.
- 4회 상황 : 심술/ 매체 : 존 버닝햄, 에드워드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조세현 옮김. 비룡소. 2006./ 관련자료 : J. S. 잭슨, 심술 좀 그만 부려!.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5.
- 5회 상황 : 용서/ 매체 : 캐럴 앤 모로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5.
- 6회 상황 : 외모/ 매체 : 안드레아 샤피, 난 크고 싶어. 러셀 이토 그림. 이연수 옮김. 그린북. 2002./ 관련자료 : 도미니고 드 생 마르스, 릴리는 자기 외모에 불만이에요. 세르주 블로슈 그림. 문은실 옮김. 북키앙. 2003.
- 7회 상황 : 정서장애/ 매체 : 고정욱, 네 잘못이 아니야. 최문수 그림. 황금두뇌. 2001./ 관련자료 : 이금이, 내 친구 재덕이. 성병희 그림. 푸른책들. 2002.
- 8회 상황 : 폭력·학대/ 매체 : 도미니고 드 생 마르스, 폭력 싫어요!. 세르주 블로흐 그림. 김태희 옮김. 푸른숲. 2004./ 관련자료 : 도미니고 드 생 마르스, 학대 싫어요!. 세르주 블로흐 그림. 김태희 옮김. 푸른숲. 2004.
- 9회 상황 : 부모/ 매체 : 안네마리 노르덴, 잔소리 없는 날. 정진희 그림. 배정희 옮김. 보물창고. 2004./ 관련자료 : 이지현, 보물찾기. 이효범 그림. 채우리. 2001.
- 10회 상황 : 형제·자매/ 매체: 앤서니 브라운, 터널. 장미란 옮김. 논장. 2002./ 관련자료 : 김종렬, 내 동생은 못 말려. 이상권 그림. 아이세움. 2002.
- 11회 상황 : 선생님·학교부적응/ 매체 : 황선미, 나쁜 어린이표. 권사우 그림. 웅진닷컴. 1999./ 관련자료 : 미셸린느 먼디, 나 학교 안 갈래.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3.
- 12회 상황 : 친구/ 매체: 크리스틴 A. 애덤스, 나랑 친구할래?.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6./ 관련자료 : 이상현, 짝꿍. 윤정화 그림. 여명미디어. 2001.
- 13회 상황 : 이사·전학/매체 : 야마모토 쇼조, 이사 가는 날 :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꾸미는 책. 스텔라 마모루 그림. 크레용하우스. 2001./ 관련자료 : 로토 류지, 꽃님이가 전학 온 날. 크레용하우스. 2000.
- 14회 상황 : 여자·남자/ 매체 : 로버트 문치, 종이 봉치 공주. 마이클 마르첸코 그림. 김태희 옮김. 비룡소. 1998./ 관련자료 :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사내대장부. 김경연 옮김. 비룡소. 2000.
- 15회 상황 : 자아존중감/ 매체 : 맥스 루카도, 너는 특별하단다1, 2.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그림. 아기장수의 날개 옮김. 고슴도치. 2004./ 관련자료: 크리스틴 애덤스 ; 로버트 부치, 난, 아주 특별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평가
- 16회 상황 : 오리엔테이션/ 책읽기를 통한 마음 돌보기란 무엇인가? ; 참여자 소개
- 17회 상황 : 가난/ 매체 : 방정환, 만년샤쓰. 김세현 그림. 길벗어린이. 1999./ 관련자료 : 바바라 슈크 하젠, 힘든 때, 트리나 샤프트 하이만 그림.이선오 옮김. 미래M&B. 2005.

- 18회 상황 : 두려움/ 매체 : 물리 위캔드, 하나도 무섭지 않아!.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관련자료 : 리카르도 알칸타라, 무서움을 이겨 낸 구스타보, 권미선 옮김, 세손교육, 2002.
- 19회 상황 : 걱정·스트레스/매체 : 앤서니 브라운, 겁쟁이 빌리, 김경미 옮김, 비룡소, 2006./ 관련자료 : 미셸 린느 먼디, 나, 스트레스 받았어!,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3.
- 20회 상황 : 정직/ 매체 :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에르하르트 디에틀 그림, 김경연 옮김, 비룡소, 2003./ 관련자료 : 오승희, 그림 도둑 준모, 최정인 그림, 낮은산, 2003.
- 21회 상황 : 주의력결핍/ 매체 : 정성심, 말썹꾸러기 꿈틀이도 잘 할 수 있어요, 다전, 2004./ 관련자료: 벨 무니, 없어졌어요!, 작은 우주 옮김, 대교, 2003.
- 22회 상황 : 신체장애/ 매체: 오가사와라 다이스케, 그래도 우리 누나야! : 중증장애인 누나를 둔 다이스케의 자전 동화, 김난주 옮김, 베틀북, 2003./ 관련자료: 고정욱, 가방 들어 주는 아이, 백남원 그림, 사계절, 2002.
- 23회 상황 : 성폭력/ 매체 : 실비아 다이네르트 ; 티네 크리그, 가족 앨범, 글울리케 불안 그림, 엄혜숙 옮김, 사계절, 2004./ 관련자료 : 질 티보,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 마리 클로드 파브로 그림, 이정주 옮김, 작가정신, 2004.
- 24회 상황 : 죽음/ 매체 : 잉거 헤르만,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카르메 솔-벤드렐 그림, 최진호 옮김, 크레용하우스, 2003./관련자료: 미셸린느 먼디, 슬플 때도 있는 거야,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3.
- 25회 상황 : 할아버지·할머니/ 매체 : 토미 드 파올라, 오른발 왼발, 정해왕 옮김, 비룡소, 1999./ 관련자료 : 페터 히르틀링, 할머니, 박양규 옮김, 비룡소, 2001.
- 26회 상황 : 이혼/재혼/ 매체 : 비키 랜스키, 코코, 네 잘못이 아니야, 제인 프린스 그림, 이경미 옮김, 친구미디어, 2003./ 관련자료 : 김향이, 나답게와 나고은, 김중도 그림, 사계절, 2001.
- 27회 상황 : 발표/ 매체 : 다니엘 포세트,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베로니크 보아리 그림, 최윤정 옮김, 비룡소, 2003./ 관련자료 : 마키타 신지, 틀려도 괜찮아, 유문조 옮김, 토토북, 2006.
- 28회 상황 : 왕따/ 매체 : 채인선, 내 짝궁 최영대, 정순희 그림, 재미마주, 1997./ 관련자료 : 문선이, 양파의 왕따 일기, 박철민 그림, 파랑새어린이, 2001.
- 29회 상황 : 성역할/매체 : 앤서니 브라운, 돼지책, 허은미 옮김, 웅진닷컴, 2001./ 관련자료 : 이규희, 아빠의 앞치마, 강을순 그림, 교학사, 2004.
- 30회 상황 : 자신감/ 매체 : 앤서니 브라운, 윌리와 악당 벌렁코, 허은미 옮김, 웅진닷컴, 2003./ 관련자료 : 수잔 헤이보어 오키이페, 나도 잘할 수 있어!, R. W. 앨리 그림,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6/ 평가

· 어린이 고학년을 위한 상황과 매체(치유서)

- 1회 상황 : 오리엔테이션/ 내 마음을 돌보는 책읽기(독서치료)란 무엇인가? ; 참여자 소개
- 2회 상황 : 화/ 매체 : 미셸린느 먼디,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3./ 관련자료 : 토니 모리슨, 알미운 사람들에 관한 책, 노경실 옮김, 김영사, 2004.
- 3회 상황 : 슬픔/ 매체 : 손 덴, 빨간나무, 김경연 옮김, 풀빛, 2002./ 관련자료 : 카린 케이츠, 슬픔을 치료해주는 비밀책, 조국현 옮김, 봄봄, 2005.



- 4회 상황 : 가난/ 매체 : 김중미. 종이밥. 낮은산, 2002./ 관련자료 : 에스터 벤티. 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향숙 옮김. 으뜸사랑, 2006.
- 5회 상황 : 이혼/ 매체 : 비블리 클리어리. 헨쇼 선생님께. 선우미정 옮김. 보림, 2005./ 관련자료 : 에밀리 멘데즈 아폰테. 난 이제 누구랑 살지?.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3.
- 6회 상황 : 흠치기/매체 : 미르암 프레슬러. 자전거 도둑 니켈. 유수진 옮김. 푸른나무, 2003./ 관련자료 : 오승희. 그림 도둑 준모. 낮은산, 2003.
- 7회 상황 : 정직/ 매체 : 황선미. 들키고 싶은 비밀. 창비, 2001./ 관련자료 : 울프 스타르크. 거짓말쟁이 천재. 햇살과나무꾼 옮김. 크레용하우스, 2000.
- 8회 상황 : 인터넷 중독/ 김종렬. 노란 두더지. 아이세움, 2004./ 관련자료 : 이금이. 금단현상. 푸른책들, 2006.
- 9회 상황 : 부모/ 매체 : 김녹두. 좋은엄마학원. 문학동네어린이, 2004./ 관련자료 : 박경태. 엄마 내 생각도 물어줘. 시공주니어, 2005.
- 10회 상황 : 형제·자매/ 매체 : 주디 블룸. 별볼일 없는 4학년. 윤여숙 옮김. 창비, 1996./ 관련자료 : 박진숙. 하나와두리. 청동거울, 2003.
- 11회 상황 : 학교부적응/ 매체 : 수지 모건스틴.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김예령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관련자료 : 롤랑 벨레. 학교가기 싫을 땐 이렇게 해봐. 이효숙 옮김. 을파소, 2004.
- 12회 상황 : 남자와 여자/ 매체 : 다그마르 가이슬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게나야. 김세은 옮김. 크레용하우스, 2004./ 관련자료 : 로자 자페. 남자와 여자. 장석훈 옮김. 푸른숲, 2003.
- 13회 상황 : 사춘기/ 매체 : 김자환. 날아라 동서남북. 청개구리, 2006./ 관련자료 : 최나미. 걱정쟁이 열세살. 사계절, 2006.
- 14회 상황 : 자아정체성/ 매체 : 김우경. 수일리와 수일리. 우리교육, 2006./ 관련자료 : 야마나카 히사시. 내가 나인 것.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절, 2003.
- 15회 상황 : 자아존중감/ 매체 : 크리스틴 애덤스. 난 아주 특별해. 노은정 옮김. 비룡소, 2004./ 관련자료 : 맥스 루케이도. 너는 특별하단다 1,2. 아기장수의날개 옮김. 고슴도치, 2004. ; 평가
- 16회 상황 : 오리엔테이션/ 내 마음을 돌보는 책읽기(독서치료)란 무엇인가? ; 참여자 소개
- 17회 상황 : 감정이해/ 매체 : 박현진 글, 윤정주 그림. 나 좀 내버려둬!. 천둥거인, 2006./ 관련자료 : 박현진 글, 윤정주 그림. 대화가 필요해!. 천둥거인, 2007.
- 18회 상황 : 외모/ 매체 : 원유순. 똥보 은땡이. 세손교육, 2002./ 관련자료 : 안드레아 사빅. 난 크고 싶어. 이연수 옮김. 그린북, 2002.
- 19회 상황 : 학대가정/ 매체 : 공지희. 영모가 사라졌다. 비룡소, 2003./ 관련자료 : 명창순. 울어도 괜찮아. 푸른책들, 2006.
- 20회 상황 : 할머니·할아버지/ 매체 : 이용포. 태진아 팬클럽 회장님. 푸른책들, 2007./ 관련자료 : 엘리자베트 브라미. 너희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단다. 이효숙 옮김. 보물창고, 2006.
- 21회 상황 : 결손가정·재혼가정/ 매체 : 이금이. 너도 하늘말나리아. 푸른책들, 1999./ 관련자료 : 배봉기. 실험가족. 푸른책들, 2003.
- 22회 상황 : 학교폭력·왕따/ 매체 : 엘리자베스 질러. 폭력은 싫어!. 배수아 옮김. 주니어김영사, 2007./ 관련

- 자료 : 문선이. 양파의 왕따일기. 파랑새어린이, 2001.
- 23회 상황 : 친구관계/ 매체 : 김녹두. 밴드마녀와 빵공주. 한겨레아이들, 2007./ 관련자료 : 박현진 글, 윤정주 그림. 나 좀 내버려둬!. 천둥거인, 2006.
- 24회 상황 : 장애/ 매체 : 이금이.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푸른책들, 2000./ 관련자료 : 한정기. 멧돼지를 잡아라. 다섯수레, 2004.
- 25회 상황 : 역경/ 매체 : 앤 카메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김혜진 옮김. 바람의 아이들, 2006./ 관련자료 : 사라 스튜어트. 리디아의 정원. 이복희 옮김. 시공주니어, 1998.
- 26회 상황 : 성역할/ 매체 : 고은명. 후박나무 우리집. 창비, 2002./ 관련자료 : 키르스텐 보이에. 아빠는 전업주부. 박양규 옮김. 비룡소, 2003.
- 27회 상황 : 성폭력·폭력/ 매체 : 박기범 글, 유동훈 그림. 새끼 개. 낮은산, 2003./ 관련자료 : 질 티보.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 이정주 옮김. 작가정신, 2004.
- 28회 상황 : 이사·전학/ 매체 : 낸시 스틸 브로코. 이제는 내 길을 가야해. 이에미 옮김. 크레용하우스, 2004./ 관련자료 : 장주식. 전학 간 윤주 전학 온 윤주. 문학동네, 2006.
- 29회 상황 : 죽음/ 매체 : 신시아 라일런트. 그리운 메이 아줌마.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절, 2005./ 관련자료 : 오츠카 아츠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별. 송영빈 옮김. 글로세움, 2006.
- 30회 상황 : 나의 꿈, 나의 미래/ 매체 : 이미애. 꿈을 찾아 한결음씩. 문학사상사, 2000./ 관련자료 : 배봉기. 나는 나. 한겨레신문사, 2003/평가.

## 2.2.2 참여자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참여자의 위치는 특별하다. 무엇보다 그의 목적이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려고 오지 않는다. 배우기 위해 학교나 학원에 가는 입장과도 다르다. 그는 ‘학교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는 한마디로 정보와 지식을 위해 책임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른이나 어린이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이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수양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아니다. 어른이나 아이의 불량한 마음씨를 수신적이고 교훈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교양을 넓히기 위해 교양강좌에 참여하는 입장도 아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다. 학생이 주일학교에 다니거나 어른이 기도회에 나가고 법회에 참석하는 입장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수신과 수양을 위한 독서가 일차적인 관심이 아닌 것이다.

위의 두 경우가 다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면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지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수신적인 입장도 아니라면 그 어떤 제3의 입장이 있다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치유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마음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수양으로도 해결이 나지 않는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응어리(complex)를 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제3의 입장을 가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책임기를 하게 된다. 심장으로 몸으로 책임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치유서를 읽을 때 이성의 맹렬한 동원은 권장되지 않

는다. 이른바 ‘학습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감성적 접근이 장려된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체험형’(experience-oriented) 독서라고 하는 것이다. ‘지식형’(knowledge-oriented)과 대비되는 형식이다.<sup>8)</sup>

우리는 선이나 요가를 익힐 때 논리와 머리로 접근하지 않고 느낌과 몸으로 접근한다. 몸의 자세와 호흡법과 명상이 중요하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몰입의 상태가 권장된다. 이것이 바로 ‘체험형’이 취하는 방법이다. 독서치료에서 참여자가 실천하게 되는 독서의 방법 또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제3의 책입기에서는 독자가 책을 따라 읽는 동안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그래서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치유에 ‘관한’(about) 지식이 쌓인다고 하여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서치료는 교육(intellectualization)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체험’(experience)이 있을 뿐이다.

### 2.2.3 진행자

그래서, 진행자는 지식적인 무엇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참여자가 그와 같은 것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행자는 당연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어떤 정신 과정의 촉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행자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기획자이며 모임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술을 발휘한다. 독서치료 모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참여자와 치유서이다. 그래서 진행자는 참여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치유서를 만나 내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독서치료 모임의 공간에서 진행자는 참여자와 치유서의 조우 관계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 스스로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서는 ‘의도된’(intentional) 소극성을 자임하게 되는 것이다.<sup>9)</sup>

### 2.2.4 진행 방법

그러므로, 도서관이나 복지관과 같은 서비스 기관에서 적용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체험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식형’으로 가면 목적의 손상이 일어나기 쉽다. 독서치료 활동에서 변화와 치유라고 하는 목적이 거부되는 일이 있다면 활동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다.<sup>10)</sup>

그래서 참여자와 치유서 간의 조우 관계를 중요시하는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전략 세우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따라서 독서치료에 ‘관한’(about) 지식은 비교적 덜 강조되는 편이다. 그래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언제나 참여자의 동기와 요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의 동기와 요구가 독서치료의 역사, 독서치료의 과정, 발문의 유형, 독서치료를 위한 자료 선정, 독서치료의 절차, 매체의 활용 기법과 같은 지식의 습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다.

8) 김정근 외, 『독서치료 사례 연구』(한울, 2007), 38쪽.

9) 위의 책, 40쪽.

10) 김정근 외, 『체험적 독서치료』(학지사, 2007), 47-51쪽.

진행자는 참여자를 준비시킨다. 참여자가 책과 능동적으로 조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하고 몰입함으로써 내적 변화와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강구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것은 독서치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자가 참여자를 준비시키는 하나의 사례이다.<sup>11)</sup>

첫째, 치유적 책읽기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안내한다.

-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에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한다.
-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 이 때 책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자세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 마음으로부터의 공감과 몰입이 중요하다.

둘째, 치유적 글쓰기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안내한다.

-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는다.
- 읽을 때 '나'에게 와 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는다.
-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장을 적는다.
- 다 읽고 났을 때 정리되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는다.
-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는다.
-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같은 책을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상대를 적는다.
- 위의 내용을 메모 형식 또는 서술하는 문장으로 적는다.

셋째, 치유적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안내한다.

- 모임에 참여했을 때 준비해 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 이 때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 망가지고 부서진다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다.
- 다른 참여자의 발언에 귀를 기울인다. 그의 말이 약이 된다.
-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 보며 토론한다. 의사소통은 약이 된다.

### 2.2.5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

『엄마, 나도 마음이 아파요!』라는 책이 있다.<sup>12)</sup> 이 책은 어린이에게도 우울증, 분노, 슬픔과 상실감, 공포와 근심, 죄책감과 수치심, 생활 속의 스트레스 등의 마음 상함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음 상함에 관한 한 어린이는 어른과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다지 민감성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경시하고 무시해 온 면이 있다. 어른들은 어린이의 호소에 대해 으레 '별 것 아니다', '참아라', '잊어버려라', '내일이면 괜찮아진다' 라고 반응해 왔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여 키우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독서치료는 책읽기를 매개로 하여 어린이의 심리 문제에 개입하는 하나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상황 설정, 치유서 선정, 참여자와 진행자의 위치 정하기, 진행 방법 등은 어린이 심리 문제를 축으로 하여 세심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11) 위의 책, 40쪽.

12) 노란 라이트·게리 올리버, 『엄마, 나도 마음이 아파요!』, 유충선 옮김(조이선교회, 2006).

위의 보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어린이 독서치료 연구와 실천의 성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특히 한국독서치료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성과는 도움이 되었다.<sup>13)</sup> 보다 직접적으로는 근래 울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어린이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다. 가령 2004년에 울산남부도서관 사서진이 중심에 서서 12주 과정의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경험은 살아있는 지침서가 되어 주었다. 그 때 생산된 한 문서는 ‘상황 설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빈번히 부딪히는 문제·고민을 크게 12가지의 상황으로 구분했다. 이 상황은 어린이들의 문제를 단편 단편으로 다루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상처를 받는 근본원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즉, 아직까지 자아의 개념이 완성되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상황설정이 이루어졌다. 이의 일환으로 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마지막에는 성편견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는 형태의 상황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나 문제가 단순히 본인의 책임, 본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데 대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sup>14)</sup>

같은 문서는 ‘자료 선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일차적으로 상황에 가장 부합되는 주제의 자료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책의 구성 방식이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들이 책 속에서 자신의 문제와 심리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선정했다. 또한 독서치료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황이나 주제의 내용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도 문체나 그림의 터치가 가벼운 자료를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단위 도서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위의 울산남부도서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책을 잘 읽어오지 않는 어린이나 산만한 어린이를 위해서는 놀이적인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진행 기술이 요구되기도 한다.<sup>15)</sup>

### 3. 나오며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영향력의 요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어떤 치유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그것이 ‘지식적인’ 것인가, 아니면 ‘체험적인’ 것인가를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독서치료에 관한 한 지식적인 요소는 부분적으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생

13) 김현희 외, 『독서치료의 실제』(학지사, 2003).

14) 이기명, 「2004 울산남부도서관 어린이 독서치료 강의계획서」(2004. 3).

15) 이기명, 위의 자료.

각한다. 선이나 요가의 수요자에게 지식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 호흡, 마음 챙김과 같은 체험과 관련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는 몸과 마음의 이완과 해방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독서치료의 경우 역시 책임기를 통한 사람의 변화와 치유 체험이 핵심 요소가 된다.

2000년대 들어와서 책임기를 통한 사람의 변화와 치유의 체험을 알리는 간행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은 큰 다행이다. 이 분야의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회>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이영애 지음 『책임기를 통한 치유』(홍성사, 2000)는 이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그 뒤에 나온 이영애 외 지음 『치유가 일어나는 독서모임』(조이선교회, 2007) 역시 좋은 체험기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역시 체험기를 생산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이 내놓은 김정근 외 지음 『독서치료 사례 연구』(한울, 2007)와 이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김정근 외 지음 『체험적 독서치료』(학지사, 2007)에도 진정성이 어려 있는 체험기가 실려 있다.

위의 간행물 외에도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생산되어 나오는 체험기의 사례는 여기저기 눈에 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평택분관, 용인시립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울주도서관, 경남양산도서관, 부산남구도서관, 부산금정도서관, 부산연산도서관, 부산구덕도서관 등이 좋은 체험기의 산지이다. 그밖에도 여러 곳이 있다.

체험기는 생산자 자신들을 위한 기념물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서치료 분야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된다. 선의 체험기가 그 분야의 진전을 알리는 표지 역할을 하듯이 독서치료의 체험기 역시 우리 분야의 성장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체험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우리 분야에서 나오는 체험기들의 증언을 읽고 있으면 이제 우리 사회의 독서치료 영역이 비로소 제 자리를 잡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 독서치료 활동의 결과물로서 체험기들이 생산되어 나오는 시점에서 독서치료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본다.

이제까지 체험형 독서치료를 실천해 온 프로그램들에서는 일반적인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적인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해 왔다. 일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쳐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분화시키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야 다음 단계의 수월성을 지향할 수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분화와 특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좀 더 지역 주민의 생활 세계로 다가서는 길이 있다. 이를테면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독서치료, 청소년의 자아성장을 위한 독서치료,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독서치료,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를 위한 독서치료, 중년 여성을 위한 독서치료, 아름다운 노년과 생의 마무리를 위한 독서치료, 가부장 사회와 독서치료, 가정폭력과 독서치료,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 주부 우울증 문제와 독서치료, 화 문제와 독서치료, 용서 문제와 독서치료 등으로 특화시켜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아름다운 노년과 생의 마무리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보기〉

- 1회 매체 : 유경. 마흔에서 아흔까지. 서해문집, 2005.
- 2회 매체 : 고광애, 유경. 마흔과 일흔이 함께 쓰는 인생노트. 서해문집, 2007.
- 3회 매체 : 박혜란. 나이듦에 대하여. 웅진닷컴, 2001.
- 4회 매체 : 고광애. 실버들을 위한 유쾌한 수다. 바다, 2003.
- 5회 매체 :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공경희 옮김. 세종서적, 1998.
- 6회 매체 : 최화숙.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월간조선사, 2004.
- 7회 매체 : 램 다스. 성찰: 나이듦과 변화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2.
- 8회 매체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케슬러. 상실수업. 김소향 옮김. 이레, 2007.
- 9회 매체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데이비드 케슬러. 인생수업. 류시화 옮김. 이레, 2006.
- 10회 매체 : 니나 엘리스. 백년의 나이트를 읽다. 박주영 옮김. 지식의날개, 2007.
- 11회 매체 : 알폰스 데켄.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진탁 옮김. 궁리, 2002.  
영원한 순환(BBC-KBS 비디오, 2000)
- 12회 매체 : 스캇 펙. 끝나지 않은 여행. 김영범 옮김. 열음사, 2003.

위에서 제시한 것은 '아름다운 노년과 생의 마무리를 위한 독서치료 과정'을 독립된 프로그램의 보기로 구성해 본 것으로 지역 사회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특화를 시도해 본 것이다. 이런 시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책의 가용성이다. 지금은 출판 시장에 치유서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 풍부하게 유통되고 있다. 관련자들은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어느 면에서 치유서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체험형 독서치료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유의할 대목이다. (24)

## 삶의 눈높이를 높이며.....

임향숙

송곡고등학교 학부모 명예사서  
hsslimlim@hanmail.net

엊그제 우리 아이가 송곡고등학교에 편입한 듯 한데 벌써 졸업을 하다니....  
어찌 이렇게 빠른 세월인지...

2년 전, 1학년 2학기에 우리 아이 의규는 송곡고등학교에 편입을 하였다.  
중학교 3학년 때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입학식을 거치지 않고 2학기부터 학교생활을 시작하다보니 학교정보나 교육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학교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보다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도서관운영프로그램이나 월별독서행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문학·문화 등 다양한 정보 등이 있어 흥미 있게 보다가 지난 자료 중 학부모명예사서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학부모 명예사서는 봉사라기보다는 도서관 활용을 통한 문화체험이며 때로는 무료한 일상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였다.



신청서를 들고 찾아 간 도서관은 망우산이 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잔잔한 클래식 선율 속에서 사서교사 이성에 선생님이 반가이 맞이해주셨다.

첫날인 그 날은 기존 학부모명예사서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예사서가 해야 할 일 등을 설명들었다. 또한 도서관이용안내 동영상과 도서관운영프로그램인 월별행사 동영상을 활용수업실에서 보면서 도서부 학생들과 사서선생님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오후 1시 당번 날, 도서관에 들어서니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곳곳에 둘러앉아 있었다. 독서삼매경에 빠져 있는 학생, 정기간행물실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학생, 멀티미디어실에서 컴퓨터에 빠져있는 학생, 논술교재나 영어소설을 읽는 학생, 세계여행이나 삼국지 등 교육만화를 보는 학생, 숙제하는 학생, 사전 찾는 학생 등등의 모습이 보였다.

다양한 책들을 읽고 대출해가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시작 종이 울리고 썰물같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책들이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책 정리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으며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였다. 내 손길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많은 시간 학생들이 이곳에 머물다 갔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다.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학생들은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의존해서 찾다보니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입학하자마자 입시중압감에 눌러 여유 없이 사는 학생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가슴이 찡해진다.

학교도서관 사랑이 학부모로부터 먼저 시작되어 도서관이 학교에서 문화 산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은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닌란 것을 알았으며 봉사와 더불어 멀게만 느껴졌던 학교와의 거리도 좁힐 수 있었다. 대학입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논술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만약 나의 아들 의규가 여학연수를 가지 않고 송곡고에 바로 입학하여 도서부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성에 선생님께서 독서행사를 통하여 독서감상화 그리기, 독서감상문 쓰기, 독서토론, 정보검색논술발표대회 등을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송곡고가 참 좋은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술의 열쇠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에서도 시인 정호승, 작가 홍세화, 소설가 이순원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좋은 만남의 시간을 학창시절에 가질 수 있는 송곡고 학생들은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마문학기행 등에서 시낭송에 참가하고 현존 작가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 가람 도서부원은 후일 추억거리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부모명예사서를 한 덕분에 이런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뻛고 즐거웠다.

이성애 사서선생님이 시인이시라 여러 가지 문학과 문화 행사를 많이 주관하시고 정보를 알려 주시어 모든 면에 관심이 많아지고 풍부해졌다. 무엇보다 책 정리를 하다보면 읽고 싶은 책을 찾을 수 있었고, 읽고 싶은 책이 많아졌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도서관에 자주 오면 책도 읽고

읽고 책을 찾다보면 책에 대한 정보도 많아질 것이다.

가람 도서부는 1학년 초에 가입하면 3학년까지 동아리로 활동하므로 의규처럼 편입학을 한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되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다. 5월 도서관행사인 전통문화교실·예절과 다도대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참가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대회장소인 운현궁에 가서 가슴조이면서 행사를 지켜보았던 일, 지켜보면서 나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부모명예사서도 이성애 사서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아 9월에 있었던 도서관문화제에서 한복을 입고 모든 관람자들에게 차(茶)를 시연하였던 것 또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밤 10시까지 행사준비를 하면서 도서관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온 정열을 쏟으시는 이성애 선생님과 2년여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학부모명예사서로서의 일은 봉사라기보다는 나의 삶에 활기가 되었으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학부모명예사서를 하면서 얻은 것이 더 많은데 졸업식 날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상장과 상품을 받으니 부끄러웠지만 기쁘기도 하였다.

그동안 좋아서 한 일이지만 한국도서관협회장상을 받으니 다른 어떤 상보다 귀한 상이라 생각되며 보람 속에 자긍심도 갖게 되었다. 끝으로 도서관운영프로그램이 학부모와 학생의 많은 관심 속에서 알찬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도서관이 지성의 쉼터로, 안식처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한다.